

나눔으로 함께하는 설맞이 행사 '훈훈'

부산지역 불교단체

이웃과 함께 명절 맞이

설을 맞아 부산지역 사찰과 불교계 단체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설 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1월 28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해해맞이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는 전 포교원장 혜종 스님, 서용교 국회의원, 이종철 남구청장을 비롯해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 총 300명이 참석해 흥겨운 노래자랑과 판소리 공연을 시작으로 설맞이 떡국거리 및 생필품 전달식이 개최된다. 이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떡국떡도 판매 수익금 전액은 이웃돕기 생필품과 청소년들의 희망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 400세대를 방문 훈훈한 이웃사랑도 펼쳐진다. 해운대 대광명사(주지 목종) 사무처 회원 봉사단은



부산 불교계는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선행사를 마련했다. 사진은 영도나눔복지관 설나눔 행사 장면.

용호복지관-희망장학금 전달

보현화-소년소녀가장 교복 마련

두송복지관-독거노인에 음식 전달

설을 맞아 지역 독거노인, 조손가정 91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떡국, 쌀,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온

정을 함께했다. 사무처 회원은 매월 2회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직접 방문하여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삼광사(주지 무원) 힐링광장 실버지원단(단장 김영자)은 1월 21일 부산진구 일대 독거노인 20가구에 김치 5kg, 쌀 10kg를 각각 전달했다. 설 이후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도 펼쳐지며 매일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불교보현회(회장 안성이는) 1월 13

일부터~27일까지 부산, 경남 일대에서 설맞이 소년소녀가장 교복마련을 위한 떡국 판매행사를 실시했다. 판매기금 전액은 불교계 종합학교인 부산 해동중학교, 금정중학교, 밀양 흥제중학교 소년소녀가장 25명을 선정하여 360여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명자)은 설을 맞아 지역 저소득층 가정 130세대에 각각 백미 10kg로식을 전달하고, 설날 독거노인 50세대에겐 연휴 4일동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음식과 제수음식을 각각 전달했다.

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회장 손운현)는 설을 맞아 1월30일 금정구 청룡초등학교 앞에서 무료급식과 설맞이 양말나눔 활동을 펼친다.

영도노인복지관(관장 선공)은 지역 저소득노인들에게 제수용품 50가구, 명절선물 세트 50가구, 쌀10kg 24가구, 쌀3kg 35가구에 총 159가구, 명절연휴에 먹을 도시락을 총144명에게 전달하고 자비의 온정을 함께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연등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40명 학생에게 총 3천만원 지원

재단법인 연등장학재단(이사장 법등)은 1월 17일 대구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제9회 연등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연등장학재단은 이날 40명 학생들에게 3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사장 법등 스님(근위 팔공산 제2석굴암 주지)은 대구경북, 부산경남 영남지역 고교생 20명에게 50만원씩, 대학생 20명에게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노동일 전 경북대학교총장은 "지난 세월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있게 해준 그 높이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하여, 꿈과 희망을 갖고 사색하여 미래를 열어가자. 항상 큰스님의 사랑과 기대를 잊지 말고 감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사장 법등 스님은 "여러분 모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21세기의 주역으로



연등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당당히, 희망과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연등장학재단은 현재 8억원과 임야 8만2천여평을 출자해 설립 운영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올해 2014년까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424명에게 총 3억 4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명대 세계선센터 비로자나불 점안식

정목 스님 힐링콘서트 개최, 독일 본대학과 협약·일본 진출도

선수행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2013년 10월 일반대학 내 전국 최초로 선센터를 개설한 동명대 세계선센터(센터장 수진, 동명대 석좌교수)가 비로자나불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동명대학교(총장 설동근) 세계선센터는 1월22일 비로자나부처님 점안법회를 개최하고 세계선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했다.



동명대 세계선센터 비로자나불 점안식

센터장 수진 스님은 "점안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세계선센터는 명상치유는 물론 심리치유 수료증 수여, 학점 인정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까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 스님은 "4월에는 독일 본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 학술교류는 물론 한국불교의 선사상을 보급하고 상반기 중 일본에도 진출할 계획"이라며 세계화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설동근 동명대학교 총장은 "세계선센터는 물질적 발달에 맞춰 마음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과 즐거움을 전하고 연구하는 인성교육의 살아있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는 3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있다. MBSR 명상치유과정과 수진 스님의 선과 힐링 과정이 학생들을 위한 교양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 인성교육과 학점, 자격증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은 일반인들을 위한 12주 프로그램으로도 운영되며 선다, 선요가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특히 세계선센터의 본격적인 출발과 함께 3월 18일 산학관4층 대강당에서 정목 스님을 초청하여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SBS 힐링캠프에 출연하여 국민적 호응과 대중성을 얻고 있는 정목 스님을 통해 세계선센터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인성교육과 선수행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영도구사암련, 기관장 초청 조찬법회

불교활성화 위해 2월 구연합신도회 창립



영도구사암연합회는 1월 20일 신년 조찬법회를 열고 신도회 창립을 선언했다.

영도구사암연합회(회장 호법, 발원사 주지)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기관장들과 함께 신년조찬법회를 개최했다. 영도구사암연합회는 1월 20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지역발전과 국민인생을 위한 지역기관장 신년조찬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미륵사 회주 정각 스님, 영도구사암연합회장 발원사 주지 호법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을 비롯 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김무성 국회의원, 어윤태구청장, 이흥우 영도경찰서장, 이상호 시의원, 황보승희 시의원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함께 했다.

회장 호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과 나라를 위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한 오늘 이 자리가 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불교계가 그늘진 곳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하시는 불교계에 감사드리며 지역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영도구 사암연합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생, 일반인 대상 템플스테이와 군부대 법회 지원과 후원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기관장 신년조찬법회는 올해로 4회째로 개최됐다. 특히, 부산지역 구연합회 활성화에 탄력을 받아 오는 2월 25일 영도발원사에서 영도구연합신도회를 창립한다고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고운사 제 7회 장학금전달식 및 문화체험

소년소녀가장 40명 KBS 방송국 견학도

조계종 16교구 본사 의성고운사(주지 호성)는 안동 KBS 방송국과 공동으로 제 7회 소년소녀가장 중·고등학생 장학금전달식과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장학금은 총 40명의 학생들에게 30만원씩 전달됐다.

고운사는 "경북 북부 지역 발전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 각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제7회 소년소녀가장 중·고등학생 장학금전달식을 갖고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 행사를 통해 그동안 문화교류하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고운사에서 사찰체험을 1박 1일 후 서울 KBS 방송국 견학과 열린음악회 공연관람 후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다.



고운사 제7회 장학금전달식 장면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중·고생들에게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법왕사 백고좌법회 입재...도법 스님 초청

대구 수성구 파동 법왕사(주지 실상)가 100일동안 100명의 스님들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백고좌 법회를 시작했다. 법왕사는 1월 16일 남원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을 초청 백고좌 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신라 진평왕 때 시작된 백고좌 법회는 역불정척이 시행된 조선시대 이후 맥이 끊어졌으나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이 지난 1994년부터 다시 계승하면서 영남의 대표적인 대중법회로 자리잡고 있다.

법왕사는 "100회의 강좌를 3번에 나누어 실시한다. 16일부터 시작한 강좌는 총



도법 스님이 새해 첫 법회를 열었다.

26회까지 실시하며, 27회는 5월 13일부터, 28회는 9월 24일부터 법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그래도,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KBS 아침마당을 따듯한 미소로 물들인
마가 스님의 '인생을 건너가는 마음 수업'

가슴 시린 출가부터 중앙대 최고 인기 강사가 되기까지의 감동 스토리 전격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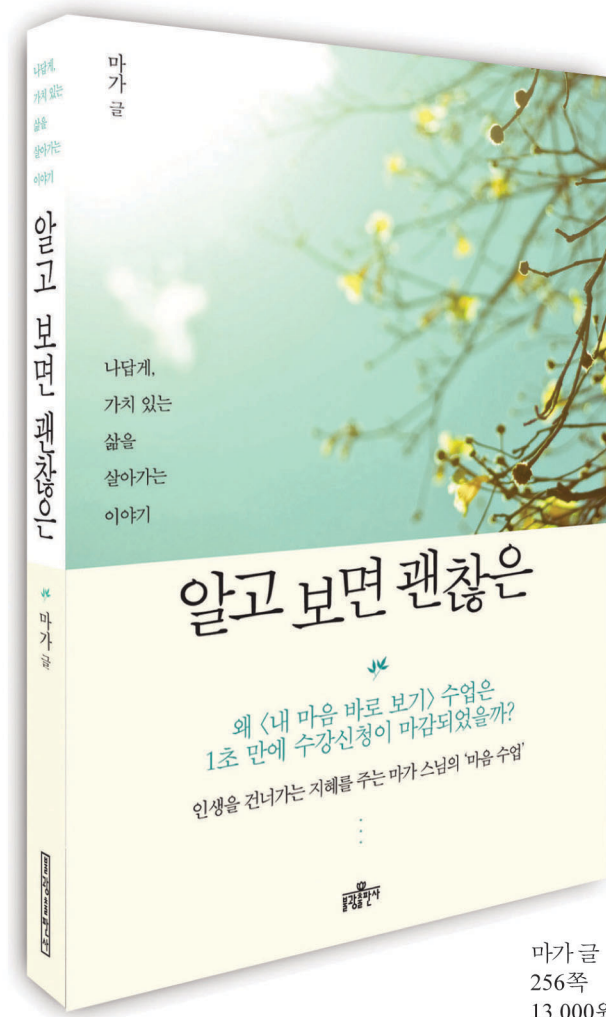


함께 넘어졌다 함께 일어나는 감대처럼,
우리도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가 사람 덕분에 일어섭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도 분명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많이 아팠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것지요.
'그래도,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알고 보면 괜찮은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 추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언론에서 집중 조명된 화제의 책!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마가 글
256쪽
13,000원